

영산강 유역 마한사 '독널'로 깨어나다

국립나주박물관 기획특별전, 내년 3월15일까지 나주 반남고분군 등 출토 유물 260여점 선보여

고대 영산강 유역 장례문화인 독널무덤. 당대 토착 세력의 장례풍습을 통해 사회문화 양상을 가늠해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같은 풍습을 갖고 있던 마한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흙으로 빚어 마음을 전했던 그들의 삶과 죽음을 조명하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나주박물관은 내년 3월15일까지 2025년 기획특별전 '흙으로 만든 날, 고요한 위안: 고대 영산강 유역 사람들의 마음을 담다'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나주 반남고분군과 영암 옥아리고분·쌍무덤 등에서 출토된 청동거울, 중국청자 등 최신 발굴 자료를 비롯해 독널 관련 유물 260여 점을 공개한다.

특히 고대 마한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알려진 '독널무덤'의 조성 방식과 '추가장' 풍습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독널은 고대 한반도에서 나타난 무덤 양식으로, 점토를 구워 만든 향아리를 관으로 사용한 것을 뜻한다. 독널무덤은 한 분 안에 여러 개의 독널을 함께 묻는 '다장(多葬)' 형태로, 흙으로 봉분을 먼저 쌓은 뒤 그 위에 독널을 묻는 '선분구 추매장'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친족이 사망하면 같은 봉분 안에 새 독널을 추가로 묻는 '추가장'이 이뤄졌다. 한 무덤에 열 기 이상 독널이 더해지는 이러한 풍습은 영산강 유역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장례 문화로 평가된다.

무덤 정상에는 의례용 토기인 '월통모양 토기(塜甁土器, 분주토기)'를 세워 무덤을 장식했

며, 이는 추가장이 이뤄질 때마다 다시 세워져 한 봉분에 여러 차례 세워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동안 독널무덤의 구조와 조성 방식은 관련 자료가 많지 않아 명확히 알기 어려웠으나, 최근 나주 덕산리 3호 무덤 재조사 등 고고학 성과를 통해 구체적인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 가운데 1부 '독널로 하 나된 사회'에서는 마한의 무덤 양식 중 하나였던 독널무덤이 영산강 유역의 대표적 장례 형태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조명한다.

이어 2부 '독자적인 독널무덤 조성'에서는 대형 독널 제작과 무덤 조성 방식, 친족 중심 사회를 반영한 추가장 문화 등 지역적 특색을 소개한다.

3부 '공유된 독널 매장 풍습'에서는 독널 안팎의 깨문거리, 주철 흔적, 구멍이 뚫린 독널 등 다양한 장례 풍습을 선보여 죽은 이의 내세를 기원했던 고대인의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계 체험 프로그램 '독널무덤을 만든 영산강 사람'과 큐레이터와의 대화도 진행한다.

김상태 국립나주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영산강 유역에 백제의 영향력이 미친 뒤에도 마한 전통의 독널 무덤이 대형화되고 체계화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며 "고대 한국사 연구의 중요한 영역이자 주제인 고대 마한과 영산강 유역 독널무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영암 옥아리 19호분 2호 독널 출토 모습. 사진제공=고대문화재연구원



나주 대안리, 영암 내동리 쌍무덤 구멍토기 나주 신촌리 9호 무덤 원통형 토기 함평 ఎ다리 제동무덤2호 청동거울

'GB 작가탐방'에 존재와 기억 모색해온 김설아 작가



'아름 개 의 검은 구멍, 소문'

17일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서

(재)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윤범모)는 김설아 작가(사진)와 함께 하는 여덟 번째 'GB 작가탐방'을 17일 진행한다. 'GB 작가탐방'은 시민들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예술 세계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김 작가의 회화는 대규모 화학 단자가 들어서면 서 사라진 고향에 대한 기억을 별레나 재, 미생물과 같은 미시적인 존재를 통해 소환한다. 여러 도시에 머물며 작업한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몸을 바꿔 되돌아오는 존재를 기억하기 위



해 연약한 것들에 주목한다. 작가의 그림에는 본래의 몸으로부터 허물어진 채 이곳저곳을 부유하는 작은 존재들이 움직이며 만든 형상이 자리한다. 작가는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와 인도의 바로다 마하라자 사이지라오 대학교(Maharaja Sayajirao University of Baroda) 예술대학 순수예술학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창작 거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캐나다 오타와와 쏘(SAW) 레지던시(2024), 광주 ACC 창작공간네트워크 레지던시(2018), 요코하마 뱅크 아트 스튜디오 NYK

(Bank Art Studio NYK) 예술가 레지던시(2017) 등에 입주작가로 선정돼 광주·전남, 일본, 인도 등지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을 다수 진행했다.

이번 대화 역시 프라이머리 프랙티스(Primary Practice, PP)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우 큐레이터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설아 작가의 회화 작업이 존재와 기억, 삶의 전상을 어떻게 조형해 나가는지 모색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17일 금요일 오후 6시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광주 남구 재중로 47번길 22)에서 진행하며 사전 신청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 작가와의 대화에 이어 수제 한지에 채색한 작품을 통해 일상의 찰나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자연의 시간을 담은 천연염색 작가와의 아홉 번째 대화도 마련. 23일 오후 4시 비공개로 진행된다. 문의 062-608-4274. 고선주 기자 rainidea@

문화리뷰

박혜강 소설가 1주기 맞아 추모보다 더 빨리 잊히는 현실

예술가의 별세 후 당사자는 떠나지만 그가 생전 창작했던 예술작품은 우리들 곁에 남는다.



지난달 25일은 민중시인으로 질곡의 한 시대 투사의 삶을 마다하지 않았던 문명란 시인(전 조선대 교수·1935~2015)의 10주기였다. 다행히 그를 기리는 두 권의 책이 발간돼 그나마 시인의 삶과 시세계를 기릴 수 있었다. 하나는 광주 동구 지원으로 발간된 '광주, 너는 오월의 휘앙세' (심미안 판)이고, 또 하나는 문명란시인기념사업회(회장 이명환)가 도서출판 작가에서 펴낸 추모 시선집 '직녀에게'였다. '광주, 너는 오월의 휘앙세'는 광주 시민이 애송하는 100편의 시를 담아 묶은 것으로, 박노식 시인의 총괄기획으로 빛을 볼 수 있었다. 이어 시선집 '직녀에게'는 순수하게 관의 도움없이 민간 영역에서 십시일반 봉사의 마음으로 동참해 천신만고 끝에 10주기에 맞춰 나올 수 있었다.

원래 문명란 시인의 10주기는 좀 더 구색을 갖춘 추모행사가 됐어야 했으나 범문단의 지원 아래 만들지는 못했다.

문 시인에 이어 14일은 또 진보진영의 작가 한 분의 추모 주기가였다. 당사자는 전남 광양 출생 소설가 박혜강 전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이다. 박 소설가는 지난해 10월 14일 향년 69세로 별세했다. 14일이 1주기였던 것이다. 박 소설가는 조선대를 졸업한 뒤 대한석탄공사에 재직하다 글에 전념하기 위해 퇴사한 뒤 1989년 무크지 '문학예술운동' 제2집에 증편소설 '검은 화산'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 장편 '젊은 혁명가의 초상'을 비롯해 '검은 노을', '다시 불러보는 그대 이름', '안개산 바람들' (上·下), '윤주' (전 5권), '도선비기' (2권), '조선의 선비들' (2권), '매전 황현' (2권), '꽃잎처럼' (전 5권), '검은 노을' 등 문제작들을 발표해왔다. 생전 박 소설가는 본보 신춘문예 소설 심사도 몇 차례 맡았다.

그의 삶과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한 1주기 추모행사가 크든, 작은 문단에서 들려오기를 바랐지만 그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아 안타깝다. 추모보다 더 빨리 잊혀지는 현실이 아쉽다. 오늘 유난히 생전 그의 화사하게 웃던 얼굴이 떠오른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바로연
바른 만남 바른 결혼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광주·서구·국내·09·0005호